

“본업인 가수로 돌아와 행복해요”

대체복무 마친 '슈주' 규현

쉽 없이 솔로 음반 녹음 tvN '강식당 2' 등 촬영 '슈퍼주니어 활동에 집중'

슈퍼주니어 규현(31)이 지난 7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와 함께 바로 활동에 복귀했다. 대체 복무를 마친 그는 쉽 없이 솔로 음반을 녹음하고 tvN '신서유기 외전 강식당 2' 촬영을 마쳤다.

팀 멤버 중 솔로 가수로도 경쟁력이 있고, MBC TV '라디오스타'와 tvN '신서유기' 등 예능에서도 활약해 복귀 전부터 방송사 러브콜이 이어진 덕이다.

"2년 만에 본업으로 돌아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소집해제 소식이 포털사이트 메인에도 오르고 여기저기 출연 제안도 오니 신기했죠."

20일 싱글 음반 '너를 만나러 간다'(The day we meet again)를 발표하는 규현을 만났다.

그는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면 "본업으로 돌아와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오전 8시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해 직장인 삶 경험하며 주말과 공휴일 소중함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를 느낀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꿈을 향해 다시 시작하는 날이니 소집해제 전날 잠이 안 왔죠. 설레어요."

그간 부모 집에서 출퇴근한 그는 다시 슈퍼주니어 숙소로 돌아왔다. 본가에서 집을 싸면서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도 아들을 이제 잘 못 보겠다고 슬퍼하면서 "아들이 꿈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규현을 끝으로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면서 슈퍼주니어는 올해 완전체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규현과 일문일답. -소집해제 당일, 복귀 인사가 없었던



데 대체 복무를 마친 소감은.

▲ 현역으로 다녀온 게 아니어서 시끄럽게 '저 다녀왔어요' 하고 싶지 않았다. 많은 분이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걸 알지만, '왜 대체 복무를 하느냐'고 욕하는 분들도 있어서 조심스러웠다. 미리 SNS에 별다른 인사가 없을 거라 전했는데 팬들이 많이 와 죄송스러웠다.

▲ 다 하는 복무여서 특별히 슬픈 마음 없이 갔다. 군 복무간 하지만 퇴근을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다시 없을 2년이였다. 퇴근 후엔 일본어를 공부하고, 피아노, 보컬 레슨도 했다. 일본어 3급 자격증을 뒀는데 긍정적으로 시간을 보냈다.

▲ 솔로 음반 준비에 시간 빠듯했어 텐데.

▲ 데모곡은 수줍음이 많이 해졌고, 휴가 때 제주 애월읍에서 친한 형과 작업도 했다. '강식당' 촬영도 예정돼 있어서 소집해제 날부터 바로 녹음을 진행하고 틈틈이 수정 녹음도 했다. 소집해제 뒤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다.

-타이틀곡 제목이 '애월리'인 건 제주에서 작업해서인가.

▲ 지인이 애월리에 별장이 있어 휴가 겸 곡을 쓰러 갔다. 그곳에서 작업하다 보니 아무래도 애월리 밤바다도 가사에 들어가게 됐다. 가사는 내 이야기라기보다 어느 순간 든 생각을 담았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는 그렇지 않다면, 표현할수록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게 슬프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흥얼거리던 가사가 마지막에 픽스됐다. 작곡만 하다가 처음 작사로 이름을 올리게 돼 행복해서 방방 뛰었다. 하하.

-선공개된 '너를 만나러 간다'는 2017년 5월 입대 당시 낸 '다시 만나는 날'의 다음 이야기인데.

▲ '다시 만나는 날'을 쓴 분이 지금 제 상황에 맞게 저를 저격해서 쓴 가사다. 알미울 정도로 제 상황을 고려해 만들었다. 데모곡 중 바로 귀에 들어왔고, 가사도 팬들을 위한 내용이라 예뻐했다.

-솔로 가수로도 자리매김했다. 음원 성적도 기대할 텐데.

▲ 요즘 음원에서 강한 가수가 많아 크게 기대를 안 한다. 이번 음반엔 공연에서 팬들과 호흡할 수 있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등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노래를 담았다.

-'강식당' 촬영은 어땠나.

▲ '강식당'은 개인적으로 받은 임무가 있어서 미리 퇴근 후나 주말에 틈틈이 준비했다. 멤버들이 저에게 계속같이한 것처럼 편하다고 말해주 감사했다. 그중 블라비 피오는 제가 대체 복무로 '신서유기'에서 빠지면서 들어갔는데, 이번에 같이 촬영하면서 진면목을 보였다. 방송을 보며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해보니 정말 형들을 잘 챙기더라. 나도 이번에 많이 의지하며 친해졌다.

▲ 가수로 음반 내고 투어도 하고 싶고 예능도 하고 싶고 너무 많았다. 지금은 의욕만 앞서 있다. 제안받은 것은 힘닿는 한 열심히 할 생각이다. 뮤지컬도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또 슈퍼주니어가 완전체로 모이는 해여서 팀 활동에도 집중하려 한다. /연합뉴스

이문세 '단, 하나의 사랑' OST 첫 주자 참여

KBS 2 드라마 내일 첫 방송

가수 이문세가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단, 하나의 사랑'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에 참여한다.

20일 드라마 OST를 제작한 빅토리콘텐츠에 따르면 이문세가 부른 '단, 하나의 사랑' OST 파트1 '단비' 음원은 오는 22일 정오에 공개된다.

'단비'는 주인공 단(김명수 분)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다. 8분의 12박자에 흐르는 스트링과 피아노 선율 등이 특징으로, 천사 단이 인간의 몸으로 발레리나 연서(신혜선)를 만나 깨닫게 되는 사랑, 연민, 그리움의 정서를 담았다. /연합뉴스



드라마는 오는 22일 첫 방송 된다. /연합뉴스

문근영-김선호, tvN '유령을 잡아라' 주연



배우 문근영과 김선호

배우 문근영과 김선호가 tvN 새 드라마 '유령을 잡아라'에서 주연으로 호흡을 맞춘다.

20일 드라마 홍보사 더 티톡에 따르면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인 '유령을 잡아라'는 지하철 경찰대가 지하철에 신출귀몰하는 유령을 잡기 위해 수사 소동을 벌이는 로 맨틱 코미디다. /연합뉴스

앞서 문근영이 지하철 경찰대 신참 '유령' 역에 캐스팅되며 4년 만에 드라마 복귀 소식을 알린 데 이어 김선호가 지하철 경찰대 반장 '고지석' 역으로 합류했다.

'유령을 잡아라'는 '돌아와요 아저씨', '육탄방 왕세자'의 신윤섭 PD가 연출하고 소원, 이영주 작가가 대본을 집필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곡 55 UHD 스포츠(재)	00 국민 여러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회사 가기 싫어 2019(재)	00 12 MBC 뉴스 25 다크 나쁜...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설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뉴스 50 한국인의 밥상(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버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경성판타지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널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2019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작 KBS 스페셜	50 원순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국민 여러분(재)	55 광주MBC 5.18 특집다큐 그의 이름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돌보림 김재동	00 국민 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11	35 UHD 스포츠 40 거리의 만찬(재)	10 회사 가기 싫어 2019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각 다큐멘터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보가 폴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6:00 한국기행(재)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8:00 생방송 특이특! 보니 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크 오늘	19:00 미니특공대 X
07:00 너티니츠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EBS 뉴스
07: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윤숙자의 DMZ 산나물비빔밥〉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40 사건 브리핑-안전상황실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띠띠뽀 띠띠뽀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두근두근 이란 2부 신이 보낸 선물〉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뽀뽀뽀 뽀로로	15:15 탐험 구조대	〈부엌기행 2부 부엌의 탄생〉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몬카트	21:50 EBS 다크프라임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6:15 짝과 팡	22:45 건축탐구 - 집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3:55 모두의 모바일 MOMO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0 당동맹 유치원1~2	24:25 지식채널e
〈두부 김치찌개와 돼지고기 김치찌개〉	17:15 마사와 곰	24:30 한국영화특선 <선생 김봉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규칙적이고 적당해야 효과를 보게 된다. 48년생 시작만 해 놓으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60년생 주변에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곳이 보인다. 72년생 해를 막아주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84년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고비를 넘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6, 17</p>	<p>午 42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54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방하다. 66년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78년생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우회해서 비유함이 더 낫다. 90년생 열중하는 것이 최종의 승자가 되는 길이다. 행운의 숫자 : 14, 40</p>
<p>丑 37년생 확인하기 전까지는 속단을 내리지 말자. 49년생 궁한 처지에 있던 이가 특효가 있는 약을 얻는다. 61년생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대국이다. 73년생 굳이 부담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 85년생 중국의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15</p>	<p>未 43년생 겉모습은 별로지만 실상은 양호할 것이다. 55년생 크게 감동 받게 될 것이다. 67년생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합리하다. 79년생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여야 대처가 가능하다. 91년생 속도 보다 완성도가 요구되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77, 25</p>
<p>寅 38년생 절실히 필요한 때에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50년생 매우 희귀하니 소중히 여겨야겠다. 62년생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 74년생 중요한 일을 이룰 수도 있다. 86년생 잠재적인 위상까지 인식하고 언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7, 56</p>	<p>申 44년생 계획한 바가 있다면 추진할 전스이다. 56년생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바이다. 68년생 작용에 따른 파장이 위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80년생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92년생 희망을 여는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0, 90</p>
<p>卯 39년생 근자에 이르러 가장 가치 있는 것과 함께하는 특별함이 있다. 51년생 견줄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63년생 단순한 관점에서의 오관을 주의하라. 75년생 부담이 경감 되겠다. 87년생 이해관계인의 파격적인 제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5, 70</p>	<p>酉 45년생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들이 갖추어지겠다. 57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69년생 미루지 말고 생각났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하라. 81년생 인식에 따른 변화의 폭이 크다. 93년생 침착하게 들어 보면 놀랄 일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2, 85</p>
<p>辰 40년생 도움이 되지 않는다. 52년생 습관적인 반복보다 창의적인 시도가 낫다. 64년생 방치 했다가는 갈수록 악화 될 수도 있느니라. 76년생 다 되었다고 여겼을 때가 가장 취약한 법이니 방심은 금물임을 알아. 88년생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될 전망이다. 행운의 숫자 : 09, 51</p>	<p>戌 34년생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게 되는 양태이다. 46년생 무리 없이 잠재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58년생 행방이 묘연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봐야겠다. 70년생 한 번 선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다. 82년생 썩 먹고 알 먹는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2, 31</p>
<p>巳 41년생 절대로 늦지 않도록 하라. 53년생 상대를 위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 되리라. 65년생 과거의 행적과 연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77년생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 89년생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70, 87</p>	<p>亥 35년생 부차적인 면에서 파생되는 이익이 더 알할 것이다. 47년생 예상치 못한 빛나기 바랄 수 있다. 59년생 습관적인 일상에 얽매어서 규모를 줄이지 못 하면 타격이 오리라. 71년생 능히 조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83년생 예상과 일치한다. 행운의 숫자 : 46, 29</p>